

# 건설현장서 노조활동 빙자해 금품 갈취... 前조폭 등 구속기소

### 검찰,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간부 2명 기소 집회 개최·민원 제기로 협박... 금품 받은 혐의 폭력 전과 있는 노조원 다수... 공범 수사 계속

노조활동을 빙자해 건설현장에서 수천~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임모(51)씨와 황모(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와 황씨는 2020년 12월께 '전국연합 건설현장노조'라는 노조를 설립한 뒤 각각 노조 위원장, 서울 강북중서부 및 경기 북부 지부장을 맡았다. 이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조직으로 전제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

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 및 노조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11개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고, 3개 건설현장에서선 5차례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임씨는 2억3000만원, 황씨는 8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다음, 소속 노조원이 있음을 빌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급여, 회식비 등 명목으로 노조간부들에게 배분됐다. 특히 임씨는 매일 1800만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간부 중엔 황씨 등 폭력전과를 가진 자들이 다수인데,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에도 몸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증거를 확보해 임씨와 황씨를 기소했다. 본부장, 지부장 등 나머지 공범과 추가 범행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노조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협박하면 건설업체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원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영상 기온에 녹기 시작한 전주천 강추위가 지나고 영상의 기온이 이어지며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전북 전주시 전주천의 빙판이 녹아 내리고 있다.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 징역

###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으로 사회해악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본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형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1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 번뿐인 인생의 하이라이프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지옥으로 만든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마저 밀려온다"는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무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接客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26일 오후 8시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뉴스

## 광주 지하철 공사현장 주변서 무단횡단하던 60대 숨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어 숨졌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동구 산수동 필문대로 편도 4차선(산수오거리 방면) 내 한 횡단보도에서 A(69·

여)씨가 B(61·여)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씨는 경찰에 '주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도중 A씨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사이에

놓인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